

“최악의 공급망 전제 대응… 원유수급 등 상황 악화 없을 것”

중동대응 본부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정점 판단
비축유 스왑 대체물량 5000만배럴
호주 가스수출제한조치 철저 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가격 동향, 주요 업종 영향 및 대응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해야 한다. 상당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위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 한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졌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

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의 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靑 “국민 보호·에너지 수송로 확보 방안 모색”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련 발언 주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신중히 대응”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미 정부의 이란 전쟁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전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서울역 대학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하에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함께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비판하며 “우리가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이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KIEP “종전 이후에도 유가하락 제한적”

공급 다변화 등 정책 대응 강조

중동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전쟁이 계속될 시에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순수입국의 물가와 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펴낸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 분석을 내놨다.

KIEP는 중동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수입 비용 증가와 나프타·LNG 수급 차질에 직접 노출될 만큼, 선제적 공급다변화 및 비상수급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전쟁이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기 종전·휴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분쟁 장기화 ▲에너지 시설 타격·확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희망적인 조기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전쟁 이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하면서,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86% 상승한 배럴당 117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에너지 시설 타격을 상정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는 전쟁 전보다 176% 오른 배럴당 174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유가 급등이 예상된다”며 “이 전망은 하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충격은 이보다도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중동 비중은 약 34.4%에 달하고, 카타르 시설 파괴 시 복구에만 3~5년이 소요될 수 있어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봉쇄 장기화 수준에 근접해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의 시급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당정, 석화분야 등 수출 피해기업 지원 확대

대체시장 발굴·전기료 완화 등 논의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

산기반 마련과 요소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이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료 요구

>> 1면 ‘트럼프, 2~3주간…’서 계속

한편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다. 특히 미달리화로 거래해 온 것에서 벗어나,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적재 용량은 통상 200만 배럴이다. 통행료로 원화 기준 약 30억 원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란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방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대를 초토화했다고 주장한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연설 직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방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 내린 5234.0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8.4원 오른 1519.7원으로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세종=김연세기자